"마당이 환하면 비가 오고 계집 뒤가 반지르르하면 애가 든다"

뜻: 출산 후 힘들었던 엄마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다음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,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남을 비유하는 말이에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회복 · 건강 · 임신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마 당 이 ∨ 환 하 면

비 가 ∨ 오 고 ∨ 계 집 ∨ 뒤 가

반 지 르 르 하 면 ∨ 애 가 ∨ 든 다

2단계 따라 쓰기 옅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마 당 이 ∨ 환 하 면

비 가 ∨ 오 고 ∨ 계 집 ∨ 뒤 가

반 지 르 르 하 면 ∨ 애 가 ∨ 든 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∨

∨ ∨ ∨

∨ ∨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ㅁㄷㅇ] [ㅎㅎㅁ] [ㅂㄱ] [ㅇㄱ] [ㄱㅈ] [ㄷㄱ] [ㅂㅈㄹㄹㅎㅁ] [ㅇㄱ] [ㄷㄷ]

웹에서 보기